인 사 말

2025 을사년(乙巳年),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의 역할

하 상 도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수석부회장/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2025 을사(乙巳)년은 푸른 뱀(蛇)의 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갑진년은 우리 역사에서 잊지 못할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 정치계는 물론 사회 전반이 격변과 파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올해도 1월 20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며,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혼란의 시기에 국가 R&D사업 등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높은 물가에 깊은 불경기로 접어들고 있어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 회원들 모두 지혜와 신중함, 변화와 적응력을 상징하는 뱀(蛇)처럼 지혜를 모아 시련을 극복하고 전 세계를 주름잡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할 식품 산업계에 큰 선물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학회는 최근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있는 '식품안전'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1986년 창립이래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학술대회와 산업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와 정보정책지를 발간해 최신 식품안전 학술정보의 생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앞으로 40년도 식품안전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 정책과 제도의 합리화와 더불어 건전한 식품안전 정보의 발굴과 보급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과 규제에도 적극 관여해 객관적 균형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며, 국제화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 됐고 온라인의 발달로 국경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식약처도 아시아-태평양국가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를 발족해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규제 외교에 힘쓰고 있어 우리 학회도 이에 대비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의 성장과 식품안전 과학기술수준 향상에 헌신해 오신 본 학회 임직원들과 이사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학회를 통해 모두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발전하시길 바라며, 우리 학회를 위해 힘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